

##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창작뮤지컬 분야) 심사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공연예술창작산실\_대본공모(창작뮤지컬 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예심) 2024년 4월 5일(금) ~ 5월 8일(수) / 온라인 심사
  - (본심) 2024년 5월 16일(목) 14:00 ~ 17:00 /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심사위원명(가나다순) : 김혜성, 신성아, 신정화, 왕용범, 최원종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분야 대본공모 사업은 창작자인 작가와 작곡가에게 참신한 작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한국 뮤지컬의 자양분이 될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니다.

이번 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심사는 작품의 예술성과 작품의 무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작품의 예술성은 심의 기준에서 80퍼센트의 비중을 갖는 만큼 심의위원들은 응모작의 소재와 주제가 기존의 작품과 어떤 부분에서 변별점을 갖고 창의성을 드러내는지, 동시대의 관객에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뮤지컬로써 대본과 음악이 어떤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20퍼센트의 비중을 갖는 무대화 가능성에서는 한국 뮤지컬 현실에서 제작이 가능한지, 치열한 뮤지컬 시장에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안착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64건 중 심사대상을 블라인드 심사로 전수검토 하였으며 1차 예심에서는 본심에 오를 15개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2차 본심에서는 최종적으로 8개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본심에 오른 대본의 경우 과거 역사와 그 역사적 상황에 놓인 인물들을 다룬 작품들, 우주와 AI, 게임 등의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환경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 그리고 일상의 삶을 구체적인 상황과 섬세한 감정들로 표현하는 작품들 등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심에 오른 작품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예술성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음악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은 대본의 구성과 형식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악보 작업, 스토리와 캐릭터를 발전시켜가는 구성력에서 매우 안정적인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캐릭터를 표현하는 호소력 있는 솔로곡, 듀엣, 코러스, 앙상블 등 음악의 편성과 스타일의 편곡이 다양하게 시도된 것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어린이 뮤지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은 대부분 캐릭터 중심의 상업적인 뮤지컬이 주류인 현실에서, 캐릭터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는 어린이 뮤지컬도 이제는 스토리와 구성, 음악 등에 더 심혈을 기울여 완성도와 작품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심에 오른 15개 작품은 쉽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속고에 속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창작뮤지컬 대본 공모에 응모한 작가와 작곡가의 수준이 뛰어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에서 최종작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8개 작품의 창작진분들께 응원과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사업에 지원한 모든 작품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공모(창작뮤지컬 분야) 심사위원 일동